

첨부파일 1. 소비자 피해 사례

【사례1】 계약해지 거절

소비자 A씨는 2018. 11. 24. PT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90,000원을 현금 결제함. 소비자는 2018. 12. 20.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,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권유함.

【사례2】 위약금 과다 요구(할인 전 가격 적용)

소비자 B씨는 2018. 4. 8. 헬스장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420,000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제함. 소비자는 2019. 4. 14.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으나, 사업자는 **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** 1개월 이용료 250,000원 및 **위약금(총 계약대금의 20%)**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함.

【사례3】 중도 해지 시 추가 비용 요구

소비자 C씨는 2018. 3. 5. 헬스장 6개월 이용계약(스피닝 등 부가 프로그램 포함)을 체결하고 총 420,000원을 계좌 이체함. 소비자는 계약 다음 날 스피닝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, 강습내용이 부실하여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함. 이에 사업자는 “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외에 **부가세,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을** 공제하면 손해가 크다”며 환급을 거절함.

【사례4】 트레이너 퇴사(계약불이행)로 인한 환급 요구 거절

소비자 D씨 2018. 9. 17. 헬스장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,440,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해 9. 27. PT 50회 계약을 추가로 2,970,000원을 결제함. 소비자는 PT 5회 이용한 후 2018. 11. 9. **담당 트레이너가 퇴사**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함. 이에 사업자는 헬스장 이용권은 6월분만 환급해 줄 수 있으며, PT는 **‘환불이 불가하다’**는 이유로 제3자에게 양도를 권유함.